



8일 오전 제주 한림여중 1학년 교실에서 수학과목에 대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신비비안나기자

■ 종이책·연필 없는 풍경... 'AI 교과서 수업 현장' 가보니

“학습 도움” 호평 속 우려도 여전

문해력 하락·디지털 과몰입 등 문제점 해소해야

8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여자중학교의 1학년 교실. 25명의 학생들의 책상 위에는 종이책과 연필이 아닌 노트북이 놓여 있다.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게임부터 하고 시작해볼까요?” 김형민 교사의 말에 학생들이 제각기 노트북 화면 속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이하 AI 교과서)'에서 게임 프로그램을 하며 지난 시간에 배운 정수와 유리수의 개념을 복습했다.

이어 본 수업이 시작됐다. 우선 교사가 AI 교과서에 나온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교사의 설명이 끝난 후 학생들이 AI 교과서 속 문제를 풀었다. 학생들은 마우스 또는 노트북 터치패드를 이용해 AI 교과서의 문제풀이 상자에 직접 숫자와 그림을 그리며 답을 풀어나갔다. 교사는 진도가 늦은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교사는 자신의 문제 풀이를 공개해도 좋다는 학생들의 답안을 스크린에 띄우고 정답을 설명했다. 문제를 다 풀 후에는 학생 수준에 따라 AI가 제공

하는 개별 맞춤형 문제를 추가적으로 풀었다.

이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진 수학과목에 대한 AI 교과서 활용 수업의 풍경이다. 3년째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연구·선도학교인 한림여중은 지난달부터 수학과목에 대해 AI 교과서 활용 수업을 진행했다. 1학년 수학기초에 서책형 교과서와 AI 교과서를 함께 활용해 수업하고 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서책형 교과서와 AI 교과서를 같은 출판사의 것으로 선택했다. 이달부터는 영어과목에 대해서도 AI 교과서를 활용해 수업에 들어갔다.

김해린 학생은 AI 교과서에 대해 “문제를 푼 다음에 답을 바로 알 수 있어서 좋다”면서도 “노트북으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점이 다소 불편하긴 하다”고 말했다. 우지아 학생도 “‘AI 맞춤 학습’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어떤 문제가 틀렸는지 보완할 점을 문제로 추려서 준다는 점이 좋다”고 전했다.

수업을 한 김형민 교사는 “종이 교과서로 할 때는 학습지나 PPT를 직접 만들어야 했는데, AI 교과서

에는 자료들이 다 들어 있어 수업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한림지역은 읍면에 있다보니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기가 어려운데, 공교육 안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부분도 보였다. 문제 풀이를 전자펜 없이 마우스로만 하다보니 학생들이 표현의 한계가 있는 점, 일부 학생이 인터넷 접속이 늦어져 수업이 지체된 점, 노트북 배터리가 떨어졌을때 곧바로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점 등이다.

올해 도내 AI 교과서 도입 학교는 초등학교 64개교(분교장 2개교 포함), 중학교는 23개교, 고등학교는 14개교 등 101개교로, 전체 학교(189개)의 53.4%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과목을 보급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AI 교과서 구독료로 약 22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I 교과서가 문해력 하락, 디지털 과몰입,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높은 구독료 등이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현장 적발 어렵고, 단속 인원은 적고...”

작년 '금연구역 내 흡연' 6만여건 점검... 과태료 부과는 127건

해마다 제주지역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수만 건의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 대비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 사례가 0건이거나 손에 꼽을 정도로 미미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금연구역 점검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보건당국은 도내 금연구역 6만621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127건을 부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지역이 3만2381개소를 점검해 123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서귀포시지역은 1만6915개소를 점검하고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건에 그쳤다. 이 중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서부보건소의 경우 단 1건의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단속 불균형'은 지난해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금연구역 점검이 이뤄졌음에도 과태료 부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금연구역 점검시설 수는 2019년 3만5743개소, 2020년 3만8710개소, 2021년 4만2727개소, 2022년 3만9590개소, 2023년 4만7870개소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각각 225건, 139건, 273건, 155건, 14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귀포시보건소는 15건, 0건, 3건, 3건, 1건의 과태료 부과실적을 기록했고, 제주시 서·동부보건소와 서귀포시 서·동부보건소 등 4개 보건소를 합친 과태료 부과 건수는 3건, 1건, 1건, 2건, 2건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 관계자는 단

속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현장 적발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턱없이 부족한 점검 인력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도 직접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면서 “신고 즉시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적발의 어려움을 말했다. 이어 “CCTV 또는 현장 사진 등으로 신고가 접수돼도 대상자를 특정하기 힘들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될 수 있어 쉽지 않다”며 “1년에 2~3번은 대대적인 관련 점검에 나서고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는 수시로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채원기자

공사장·별목작업장서 부상사고 잇따라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의 부상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 수칙 준수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9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한 공사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철재 파레트를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파레트에 머리를 맞고 다리를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36분쯤 서귀포시 토평동 한 물류센터에서 농

업용 기계 레일에 40대 남성 B씨의 발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기계를 분해해 B씨를 구조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또 오전 1시쯤 제주시 구좌읍 한 동리에서는 별목작업을 벌이던 50대 C씨가 쓰러지는 나무에 등 부위를 맞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김채원기자 hakch@ihalla.com

외벽 타고 전 연인집 침입한 20대 검거

경찰, 스토킹 혐의 등 조사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동주택 외벽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제주시내 한 공동주택 외벽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혐

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와 전 연인 관계로, 다른 남성과 집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해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연락 금지 등을 뜻하는 잠정 조치를 내렸다.

김채원기자 hakch@ihalla.com

주점서 흥기로 손님 썰러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 흥기로 썰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40분쯤 제주시내 한 주점을 찾아 피해자를 흥기로 썰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연인이 손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기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채원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치,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5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3,0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윈터프린스 /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 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카라향 / 황금향 /
 하갈 / 팔삭 / 자몽 / 레몬 /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2025년 예약 중 무병묘 / 포트묘 보조사업 가능